

시진핑 '중국몽' 내세워 리더십 강화

중 공산당 창당 100주년 계기 당 성과·중화민족 부흥 역량 강조 전인대·정협 '시진핑 핵심' 학습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일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을 건틀지 말라고 경고한 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中國夢)을 내세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5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시(求是)에 '당의 역사를 배워 신뢰를 증진하며 힘써 실천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의 찬란한 성과와 힘겨운 여정,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하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를 깊이 깨닫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역사적 필요성을 깨달아

당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자신이 내세운 사상의 핵심인 '4개 의식' (四個意識)과 '4개 자신감' (四個自信)의 견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4개 의식은 시 주석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一致)를 의미한다. 4개 자신감은 당원들의 초심을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다.

시 주석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중국의 민족 단합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일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한 학습이 주요 조직에서 전방위로 이뤄지며 '시진핑 핵심' 띄우기도 가열되는 분

위기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 치협상회의(정협·政協), 국무원은 지난 2일 리커창(李克強) 총리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각각 당조 회의를 통해 '시진핑 100주년 연설'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이날 학습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시 주석의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중국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경주하자는 내용이 메인이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래 샤오강(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업적 띄우기에 주력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내달 베이징이허 회의와 10월 6중 전회 등에서 시 주석의 집권 연장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중국 100년을 목표로 한 중국몽 달성을 위해서 시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띄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시즈오카 아타미의 이즈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 5일 구조대가 진흙더미를 헤치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일본 '폭우 산사태' 야산 개발로 피해 커진 듯

사망자 3명... 113명 소재 확인 중

지난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산 지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야산 개발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즈오카현은 산사태가 시작된 곳에 나무를 베고 5만4000㎡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흙이 쌓여있던 택지 개발지가 있다고 전날 발표했다.

시즈오카현은 개발 행위로 쌓여있는 흙을 포함한 토사의 붕괴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했다.

가와카쓰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는 "개발 행위와 (산사태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데,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사태 발원지는 택지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이의 골짜기 형태로 벌목 흔적이 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이번 산사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고령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날 추가로 확인됐다.

산사태 피해 가옥은 적어도 130채로 아타미시는 소재를 알 수 없던 주민 147명 중 34명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3명의 소재는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 피해 가옥 등에서 구조된 주민은 23명이다. 아타미시는 당초 행방불명자가 약 20명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확인 범위를 확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대, 육상자위대 등은 산사태 피해지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와 추가 산사태 우려로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타미시에는 여전히 호우 및 산사태 경보가 해제되지 않았고, 이날 오전 현재 562명의 주민이 시내 호텔 2곳에서 피난 중이다. /연합뉴스



독립기념일 인파 넘쳐나는 뉴욕 해수욕장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의 코노 아일랜드 해변이 연휴를 즐기려는 해수욕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47명 사망' 필리핀 군 수송기 추락 원인은 '짧은 활주로'

베테랑 조종사도 착륙 어려워

필리핀 군의 C-130H 수송기가 남부 솔루주(州) 홀로 섬에 추락해 탑승자 96명 중 47명이 숨지면서 사고 발생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군 당국의 발표와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활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릴리토 소베자나 필리핀 군 합참의장은 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조종사가 활주로를 찾지 못했고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결국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추락한 수송

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공항은 필리핀 내 다른 공항들에 비해 활주로는 짧다고 전했다. 따라서 숙련된 베테랑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착륙이 극히 어려운 곳으로 통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수송기가 공격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항 주변이 산악지대여서 우천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당일 기상 상태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련의 정황을 감안하면 C-130H는 조종사가 활주로를 벗어나 부근 산악지대에 불시착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부 민다나오 사령부의 코를레토 빈루안 중장은 "수송기는 활주로를 지나쳐 얇은 벼랑에 처박히면서 두 동강이 났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다행히 생존한 49명의 탑승자 중 다수는 비행기가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기내 밖으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해 폭발을 피할 수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탑승했던 군인들은 최근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에 투입되기 위해 남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오시에서 비행기에 탔다가 참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일 스가 정권 연이은 선거 패배로 위기감 고조

4월 재보선 이어 도쿄의회 패배

가을 총선 앞두고 당내 교체 여론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올해 가을 총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민당 일각에선 스가 총리를 간판으로 총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5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투개표가 이뤄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중 3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차지한 23석을 합해 56석으로 과반(64석)에 크게 미달했다.

이번에 자민당이 확보한 의석은 도쿄도 의회 선거 사상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역대 최저 의석은 직전 2017년 도 의회 선거 때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도민 퍼스트(First)회'의 돌풍에 밀려 기록한 25석이다.

자민당은 도쿄도 의회 제1당 지위를 탈환했지만 전체 의석의 26%밖에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패배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자민당은 50석 정도를 확보해 공명당과 함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쿄올림픽 개최 및 관중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有)관중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 스가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가 정권은 지난 4월 중·참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3개 선거구에서도 모두 패배(부전패 포함)한 바 있다. 당시 전통적 자민당 강세 지역인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도 후보를 내고 패배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도쿄도 의회 선거는 올해 가을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렸기 때문에 자민당이 받은 충격은 더 크다. 수도권 도쿄도(인구 1400만 명)는 무당파중 비율이 높고 그때그때 여론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지역이어서 국회의원을 뽑는 국정선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